

먹통 무전기와 사투 벌이는 소방대원들

광주·전남 보급률 63.9%... 10대 중 3대 사용연수 초과 단체별 방식 쌍방향 교신 불가...잡음에 개인전화 사용도

광주·전남 소방현장 출동대원들이 쓰는 무전기 10대 중 3대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무전기 문제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진압 과정에서 지적됐던 것으로, 오래된 무전기는 감도가 떨어져 현장교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소방대원들의 하소연이다.

16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무전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소방서가 보유한 소방 무전기의 32.3%가 내용연수(7년)를 초과했다. 또 보급률도 63.9%에 불과했다.

내용연수는 최소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

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용시간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다.

광주지역 각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총 681대이며, 이중 199대(29.2%)가 내용연수(노후율)를 넘겼다. 전남은 1290대 중 439대(34.0%)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무전기 노후율은 전국 18개 광역 자치단체(경남 창원포함) 중 경기도가 66%(4056대 중 2665대)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61%), 창원(60%), 충북(58%), 서울(56%), 제주(54%), 경북(48%), 부산(3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전·강원·충남·전북 등 4곳은 노후 무전기가 없었다. 전국 평균은 37%(2만5939대 중 9588대)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소방출동대원 3082명에 대한 1인당 무전기 보급률은 전국 평균 72.4%(3만5799명, 2만5939대)보다 낮은 63.9%였다.

광주 대원(954명)들의 보급률은 71.3%이었으며, 전남 대원(2128명)의 보급률은 60.6%에 그쳤다.

보급률은 울산이 129%(706명, 914대)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128%), 충남(120%), 충북(118%) 순이었다.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42%)으로, 강원(50%), 경남(52%), 대구(5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출동 대원들은 낡은 무전기와 낮은 보급률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한 119구급대원은 "근무교대 때마다 소방서 상황실과 교신 감도를 체크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잡

음이 심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여러 번 다시 되묻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낡은 무전기는 배터리가 오래 버티질 못해 항상 충전기에 꽂아 놔야 한다"면서 "특히 몇대의 무전기를 여러 대원이 사용하다 보니, 무전기마다 상태 등이 달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했다.

전남의 한 119화재 진압대원도 "전남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화된 무전기의 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현장에서는 상황실과의 교신이 중요한데 노후 무전기는 대부분 단체별 방식이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없다.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신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겨울비 우산 속 수다 겨울비가 내린 1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거닐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이날 최고 31.5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비는 17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치원 '방과후 영어' 대책 내년초 마련

교육부, 고액 학원 강력 단속·제도 개선 선회

교육부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과후 영어 금지 철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놀이 중심으로 이뤄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왜 금지시키느냐, 고액의 영어학원에 보내라는 것이냐"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 평균 영어특성화 교육비가 1만~3만원 가량이다. 학원은 이 돈의 수십 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적은 돈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데, 왜 이를 금지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은 규제를 안 하고 사립유치원만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애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맞춰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녘 07:32
해짐 17:45	달님 17:58

비 개인 아침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3/9	보성	비온뒤겹 1/8
목포	비온뒤겹 3/8	순천	비온뒤겹 3/10
여수	비온뒤겹 4/9	영광	비온뒤겹 1/8
나주	비온뒤겹 1/9	진도	비온뒤겹 3/7
완도	비온뒤겹 4/10	전주	비온뒤겹 2/7
구례	비온뒤겹 1/8	군산	비온뒤겹 2/8
강진	비온뒤겹 3/10	남원	비온뒤겹 1/8
해남	비온뒤겹 2/9	홍산도	비온뒤겹 4/8
장성	비온뒤겹 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부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남해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서부	북서~북 1.0~2.5	서~북서 1.0~2.0
남부	북~북동 1.5~2.5	북서~북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29	02:01
	20:10	14:50
여수	07:41	09:41
	21:33	21:33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	☀	☀	☀	☀	☀	☀
1/9	-3/8	-4/8	-2/8	1/5	-3/4	-7/0

◇생활지수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미세먼지	☀

한국형 청소차 개발·낮에만 쓰레기 수거

환경부 미화원 안전대책 발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가 개발되고 낮(주간)에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16일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광주시 등 각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360도 카메라 등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

칙적으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도 마련한다. 잦은 승·하차 등 환경미화 작업 특성과 도시 골목 등 국내 지형을 감안해 개발된다.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인상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환경미화원 2명이 안전사고로 잇따라 숨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북대 학부모 "서남대 학생 의대 편입 안돼"

대학총장 고발

내달 말 폐교하는 서남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에 반대하는 전북대 의대생 학부모들이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고발했다.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생 학부모 모임' 학부모 5명은 16일 전주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이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전북대 의과대학장은 서남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전북대 의대 편입학에 대해 간성투표를 하게 해 위계로써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